

梅溪 曹偉의 燕行文學 研究

李 聖 炯 *

<目次>

- | | |
|---------------------|------------|
| I. 序論 | IV. 文學的 意義 |
| II. 「燕行錄」의 選別 및 再編次 | V. 結論 |
| III. 燕行詩의 作品世界 | |

<국문 초록>

本稿는 梅溪 曹偉(1454~1503)의 문집에 수록된 燕行關聯 作品을 고찰함으로써 매계의 燕行文學의 성격과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연행록」에 대한 고증적 고찰을 통해서 연행록의 명칭문제와 연행 관련 작품들을 고찰해 보았다. 연행관련 작품을 연행기간, 연행노정, 교유시기 등을 근거로 고찰해 보았다. 기존 「연행록」의 54題 73首의 작품 중 31題 41首의 작품이 연행관련 작품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연행문학의 성격을 고찰하기 위해서 증별시 5題 5首의 작품, 홍귀달의 증서류 산문 1편을 연행관련 작품으로 분류하였다.

연행시의 작품세계는 크게 ‘觀光興懷의 稱歎과 鄉愁’, ‘交遊人士에 대한 勸勉과 敬慕’, ‘史蹟에서의 弔古와 鑑戒’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먼저 ‘觀光興懷의 稱歎과 鄉愁’를 노정한 작품세계에서 매계는 연행을 앞둔 동료에 대한 贈別詩를 통해서 관광에 대한 기대감과 참신한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열망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연행에서는 이국적인 경물을 접하게 되면 칭탄의 情感을 노정 하였다. 또한 변화한 도시를 경과할 때면 明을 中華로서

* 군포 흥진고등학교 교사 / great-one@hanmail.net

실감하기도 하였다. 다만, 오랜 연행노정에서 오는 行路難에 봉착하면 鄉愁感을 숨기지 않는 인간적인 면모도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交遊人士에 대한 勸勉과 敬慕’의 소회를 표현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매계는 교유인사들에게 異國景物의 觀光이나, 이를 통한 새로운 詩作의 계기로 삼을 것을 권면하곤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文以載道論의 認識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경에서 교유한 인물에 대해서는 인품과 학식에 대하여 敬慕의 마음을 드러냈다. 다만 외교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시문의 주제와 내용이 다분히 稱頌과 敬慕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史蹟에서의 弔古와 鑑戒’를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서 매계의 역사인식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매계는 진시황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진시황의 功過에 대한 냉정한 역사인식을 볼 수 있다. 특히 만리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관방의 효용성, 선진 문물로서의 상징과 더불어 명대 후반까지 장성의 축성이 지속되었던 시대상황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장소에서는 弔古와 鑑戒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매계는 史蹟과 역사적 장소를 경과하면서 단순히 弔古의 感傷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사의 비판적 인식과 재평가를 통해서 溫故知新과 前轍不踏의 鑑戒를 얻고자 했다.

매계 연행문학의 문학적 의의로는 먼저 燕行詩는 蘇軾 및 江西詩派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한시의 형식은 칠언율시가 대부분이고, 수사상 用典과 換骨奪胎法 등이 자주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매계 燕行詩는 칠언율시 위주의 서정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했고, 적극적인 교유 관계가 보인다.

【주제어】 梅溪 曹偉, 燕行錄, 燕行詩, 江西詩派, 用典, 換骨奪胎法

I. 序論

本稿는 梅溪 曹偉(1454~1503)의 문집에 수록된 燕行關聯 作品을 고찰함으로써 매계의 燕行文學의 성격과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매계는 조선 成宗朝의 대표적 문신으로, 同知中樞府事였던 연산군 4

년(1498) 4월 11일에 明 孝宗(弘治帝 朱祐樞, 1470~1505)의 29세 萬壽節을 축하하기 위한 聖節使로 連行하였다. 使命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戊午士禍가 발발하였고, 매계는 스승이자 姊夫人 估畢齋 金宗直의 詩文集을 撰集했다는 죄에 연루되어 귀국하자마자 漢陽으로 압송되어, 9월 6일부터 推鞠을 당하고 9월9일에 義州로 定配된다.¹⁾ 이후 順天으로 移配되어 5년여를 유배생활을 하다 謫所에서 병으로 易簣하였다. 燕山君 10년(1504) 甲子士禍에서는 죄가 추가 되어 剖棺斬屍당하고 가산이 籍沒당했으나, 中宗 2년(1507)에 伸寃되었고, 肅宗 35년(1709)에 ‘文莊’이란 시호를 받았다.²⁾

현재 학계에서 매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는 있으나,³⁾ 매계의 連行문학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燕行文學’은 ‘使行文學’⁴⁾ 중에서 對中國 관련 사행문학을 의미하는데, 주로 燕行을 경험한 작가들이 남긴 使行錄인 連行록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林基中 교수에 의하여 수집·정리된 455종의 「연행록」이 전집류,⁵⁾ 온라인,⁶⁾ DVD자료⁷⁾

1) 『燕山君日記』 31卷, 4年, 4月11日(丙子)條, 9月6日(辛丑)條, 9月 9日(甲辰)條 참조.

2) 李東宰, 『梅溪集』, 평사리, 2009, p. v~vi 참조.

3) 매계 관련 문학 연구로 가장 주목되는 연구는 이동재 교수의 연구이다.(李東宰, 「매계 조위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박사), 2001.). 매계관련 논문중에서 최근에 발표된 주요 논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성범, 「매계 조위의 시세계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2011.

노경민, 「매계 조위의 생애와 작품세계」, 경상대 교육대학원(석사), 2008.

李東宰, 「梅溪 曹偉 편집 『遊松都錄』 소재 한시연구」, 『漢文教育研究』 제31호, 2008.

金周坤, 「梅溪 曹偉의 文學世界」, 『儒學과 現代』 제7집, 2006.

4) 使行文學은 紀行文學의 한 영역으로써, ‘作家가 國內·國外 使行에 참여하여, 使行 體驗과 使命 遂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표현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拙稿, 「壬亂 收拾期 使行文學 研究」, 공주대(박사), 2010. 1~2면.) 위의 정의를 근거로 使行文學을 분류하면 ‘對中國 使行文學’, ‘對日本 使行文學’, ‘接伴 使行文學’, ‘其他 使行文學’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중 ‘對中國 使行’과 관련된 용어로 현재 연구자들은 가치중립적인 ‘燕行’이란 명칭을 활용하여 명명하는 추세이며, 필자도 이러한 연구자들의 의견과 분위기에 동의하여 이에 따르고자 한다.

등으로 보급되면서 국내외에서 연행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후기의 연행록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선전기 연행록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초간본인 무술본 『매계집』의 권3에 수록된 「燕行錄」을 주자료로 삼고, 연행관련 기타 작품이나 증별시를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⁸⁾ 다만, 매계의 「연행록」 중에 창작 순서가 바뀌거나, 연행과 관련 없는 작품이 상당수 발견된다. 또한 「연행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燕行時 창작한 것이 분명한 몇 수의 작품도 발견이 된다. 따라서 우선 연행과 관련된 작품의 고찰을 통해서 분석대상 작품을 선별하고, 이를 연행노정의 순서를 바탕으로 작품의 편차를 재조정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매계가 연행사들에게 증별했던 작품들도 여러 편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연행에 대한 매계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연구대상과 범위를 고찰한 뒤 燕行詩의 작품세계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觀光興懷의 稱歎과 鄉愁’, ‘交遊人士에 대한 勸勉과 敬慕’, ‘史蹟에서의 弔古와 鑑戒’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매계의 연행문학이 갖는 의의에 대하여 究明하고, 본 논문의 논의를 정리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밝히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5) 동국대학교 출판부, 『연행록 전집』 1~100권, 2001.

상문사, 『연행록 속집』 1~50권, 2008.

6) <http://www.krpia.co.kr/content/?svcid=KR&proid=187>

7) 林基中 編, 燕行錄叢刊, KRPIA.CO.KR, (주) 누리미디어, 2011.

8) 매계는 많은 시문을 남겼으나 갑자사화에서 대부분이 逸失되었다. 후에 庶弟 曹伸이 일부 작품을 수집하여 撰次해서 전해지던 작품이 1718년 목판본인 무술본 매계집이 간행되었고, 이후 1928년에 중간본인 무진본으로 간행되었다(李東宰, 『梅溪集』, 평사리, 2009, p.vi~ix 참조.)

II. 「燕行錄」의 選別 및 再編次

문학연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판본과 작품 등에 대한 고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작품의 眞僞, 字句의 同異, 註釋의 正誤, 작품의 창작연대, 실물이나 실상을 통한 徵驗 등을 통해서 연구 대상 작품을 선별한 뒤에 작품의 분석과 감상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문학연구가 될 수 있다.⁹⁾

전술했듯이 『매계집』은 逸失되었던 매계의 遺稿를 庶弟 曹伸이 撰次해서 전해지던 것이 1718년에 들어서야 문집으로 간행될 수 있었다. 매계 사후 216년만의 일이다. 壬丙 兩亂의 兵火를 피해 遺稿가 무사히 문집으로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작품들의 編次에 창작순서가 뒤바뀌어 구성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하는 『매계집』 권3의 「연행록」에는 七言律詩 54題 73首가 수록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간순서에 따라 편차되었지만, 연행과 관련이 없거나, 창작 순서가 뒤바뀐 여러 작품들이 발견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연행록」의 명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연행록」에 편차된 작품 중 연행관련 작품을 선정하고, 「연행록」 이외의 작품 중에서 연행시 창작된 것이 명확한 작품을 선정하겠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을 再編次 하겠다.

먼저 「연행록」이란 명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使行錄의 명칭은 對明 使行의 경우 「朝天錄」이 일반적이고, 對淸 使行의 경우 「燕行錄」이 일반적이다. 「朝天錄」은 ‘天子의 조정에 조회하러 다녀온 기록’을 의미하여 중국에 대하여 존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燕行錄」은 ‘북경에 다녀온 기록’을 의미하여 중국에 대한 존경

9) 黃永武, 『中國詩學』 鑑賞, 設計篇, 臺灣 巨流圖書公司, 1980. “就考據求真的層次而言, 先辨詩篇的眞僞, 再校字句的異同, 次定註釋的正誤, 再查作品的年代, 復求實物的徵驗, 這五項是著重於考據的科學性. … 詩的欣賞, 常常得以實地徵驗的知識作為求真的基礎.”

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林基中の『燕行錄叢刊』 자료를 보면,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對明 사행이 단절되는 1636년까지 총 142종의 使行錄이 수록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燕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5회만 보인다. 또한 1636년부터 1894년까지 對淸 사행록 310종 중에 ‘朝天’이란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864년 연행한 春臯 張錫駿이 단 1회를 사용했을 뿐이다.

사행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연행록」이란 명칭을 『매계집』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¹⁰⁾ 그러나 ‘過諸葛亮墓’의 夾註에서 이 작품은 매계가 朝天時에 御題應製한 작품이라고 설명하여 ‘朝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¹¹⁾ 따라서 『매계집』의 「연행록」이라는 명칭은 문집이 간행되었던 1718년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대중국 사행록에 대한 일반적 명명 방식이 반영된 것이다. 『매계집』이 1636년 이전에 간행되었다면 「朝天錄」, 「朝天詩」 등의 명칭을 사용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행록」 소재 작품을 연행기간, 연행노정, 교유시기 등을 근거로 연행관련 작품을 선정해보도록 한다.

매계는 1498년 4월11일 성절사의 정사로서 서장관 鄭承祖와 함께 한양을 출발하여 같은 해 9월 6일 한양에 압송되기까지 약 5개월간 연행을 다녀왔다. 成宗朝의 朝明外交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일정한 연행노정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당시 주요 노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漢陽→碧蹄→臨津→開城府→金郊→平山府→鳳山郡→黃州→中和郡→平壤→順安縣→肅川府→安州→嘉山→定州→郭山→宣川郡→鐵山郡→龍川郡→義州→九連城→鳳凰城→連山館→遼陽(懷遠館)→海州衛→盤山館→廣寧→杏山→曹家莊→山海關→撫寧→永平府→豐潤→玉田→通州→北京¹²⁾

10) 林基中 編, 燕行錄叢刊, KRPIA.CO.KR, (주) 누리미디어, 2011.

11) 曹偉, 『梅溪先生文集』 卷二, ‘過諸葛亮墓’. “御題應製, 蓋先生朝天時作也.”

12) 최강현, 「한·중사행문학연구 1 : 사행로의 변천상을 중심으로」, 『동서문화 교류연구』 제2집, 1999, pp.231~232 참조.

이상의 연행기간, 연행노정과 함께 매계의 인물교유관계를 중심으로 「연행록」 작품을 분석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¹³⁾

【표-1】 燕行關聯 作品 與否 判斷

연 번	詩 題	연행관련 작품 여부	
		판 단	판 단 이 유
1	宿碧蹄驛	○	◦제목의 夾註로 창작시점이 明記
2	鳳山環翠樓 次張舍 人城韻	△	◦鳳山은 황해도 지역으로 연행의 경 유지
3	黃州次宋可中 軼韻留 別	○	◦宋軼의 연행관련 증별시에 대한 和 韻詩
4	附可中元韻	○	◦3번 작품에 대한 宋軼의 原韻詩
5	遊大同江車門亭 奉呈 觀察使 兼示同行諸君	○	◦遠程에 대한 내용. 大同江이 연행 의 경유지. 연행 떠나는 내용 ¹⁴⁾
6	定州迎薰樓	△	◦迎薰樓은 중국사신을 영접하던 장 소이며 연행 경유지
7	雲興館次金太僕 混韻	○	◦雲興館은 중국사신을 영접하던 장 소이며 연행 경유지. 연행 떠나는 내용 ¹⁵⁾
8	車輦館次金太僕 混韻	○	◦車輦館은 중국사신을 영접하던 장 소이며 연행 경유지. 연행 떠나는 내용 ¹⁶⁾
9	義州聚勝亭	△	◦義州는 燕行時 외교문서, 방물을 점검하던 곳
10	鳳凰山	○	◦東八站 연행노정상의 산
11	遼陽	○	◦懷遠館이있던 연행노정상의 주요 도시
12	遼河源出塞外胡地	○	◦연행노정상의 장소
13	凌河	○	◦凌河는 大凌河, 小凌河로서 연행노 정상 주요 하천
14	東關途中	○	◦연행노정상의 장소

13) 교유와 사승관계 등에 대해서는 李東宰 교수의 『매계 조위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pp.26~58 참조.
인터넷 자료로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참조.

15	山海關	○	◦연행노정상의 장소
16	奉天殿早朝	○	◦北京 궁궐의 하나
17	奉天殿賀萬壽節	○	◦北京 궁궐의 하나
18	謁文丞相廟	○	◦文天祥 사당의 소재가 北京
19	次董主事送別韻	○	◦董忱은 明에서 교유한 인물
20	留別董主事	○	◦董忱은 明에서 교유한 인물
21	次劉主事送行韻	○	◦劉吉은 明에서 교유한 인물
22	永濟驛樓卽事	○	◦永濟驛은 豐潤縣에 있는 연행노정상의 장소
23	南海澄清	○	◦공간적 배경이 碣石山 근처의 발해
24	登漁陽崆峒山二首	○	◦漁陽은 薊州에 있는 연행노정상의 장소
25	角山擁翠	○	◦角山은 산해관 인근의 장소
26	長城古堞	○	◦만리장성을 직접 본 소회를 표현한 작품
27	石河秋漲	○	◦石河는 산해관과 근거리에 있는 강
28	茶盤霽雪	△	◦茶盤에 대한 詠物詩 또는 題畫詩
29	灑口漁舟	○	◦灑는 渤灑로 연행로에서 볼 수 있는 바다
30	秦島仙跡	○	◦秦島는 秦皇島로 연행로정상의 장소
31	次李仲敬 <small>穆</small> 韻	×	◦李穆과 연행 이전 교유시기의 작품
32	贈別李仲敬	×	◦李穆과 연행 이전 교유시기의 작품
33	久雨	×	◦내용과 편차상 유배시기의 작품
34	寄贈從弟存愼	×	◦義州 유배시 작품 ¹⁷⁾
35	守歲次淳夫韻	×	◦鄭希良과의 교유는 義州 유배시기
36	憶梅	×	◦연행기간과 계절적 배경의 불일치
37	次韻答鄭 <small>淳夫</small>	×	◦鄭希良과의 교유는 義州 유배시기
38	次成安齋重卿 <small>任</small> 韻	×	◦成任의 생몰년과 사행시기의 불일치
39	寒食雨. 次 <small>淳夫</small> 韻	×	◦鄭希良과의 교유는 의주 유배시기
40	次成鄭兩君韻	×	◦연행기간과 作詩의 시간적 배경의 불일치
41	戲贈 <small>淳夫</small>	×	◦鄭希良과의 교유는 義州 유배시기
42	上警邊體察使李二相	×	◦경변사李克均과의 교유는 義州 유배시기
43	次宋觀察使 <small>可中</small> 寧邊客館韻	×	◦宋軼이 평안도 관찰사에 1499년 2월에 임명
44	將向湖南 示同來諸子	×	◦義州에서 順天으로 이배시기의 작품

45	次鄭 _{淳夫} 韻	×	◦鄭希良과의 교유는 義州 유배시기
46	次宋 _{可中} 留別韻	×	◦義州에서 順天으로 移配時期的 작품
47	途中寄龍灣崔牧伯	×	◦義州에서 順天으로 移配時期的 작품
48	寄陳判官 _{岩壽}	×	◦陳岩壽와의 교유시기가 불명확, 편차상 유배시기
49	寄吳龜城	×	◦吳龜城과의 교유는 義州 유배시기
50	次淳夫韻	×	◦鄭希良과의 교유는 義州 유배시기
51	用淳夫韻	×	◦鄭希良과의 교유는 義州 유배시기
52	廣明寺贈寮主僧	×	◦廣明寺는 전남 승주군 낙안읍에 있던 절
53	晉州矗石樓 戲次許 _獻 之韻	×	◦공간적 배경이 진주 矗石樓
54	矗石江	×	◦공간적 배경이 진주 矗石江(南江)

※판단 기호 : ○ - 明確, △ - 可能, × - 無關

도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번~30번의 작품은 연행과 관련된 작품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연행 관련이 명확한 작품은 제목과 내용 등에서 명확히 연행과 관련된 작품임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다만 2번, 6번, 9번 작품은 국내 연행노정 중에 창작된 작품으

- 14) 두 번째 수의 頸聯과 尾聯이 “且向天涯窮討景 何愁遼左遠離群 明朝迢遞關河路 夢繞湖山更十分”로 “끝없이 먼 땅으로 향해 가면서 경치를 이야기하며, 무슨 근심하라. 멀리 떠나 있다고. 내일이면 아득히 먼 관하의 길에 들어서려니 꿈 속에서도 호산을 더욱 분명히 뱀돌겠지”라고 하여 연행을 떠나는 심정을 표현했다.
- 15) ‘征衫과 ‘專對使’라는 시어를 통해서 연행노정 중에 창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16) ‘長安’, ‘萬里迢迢馳玉節’, ‘王事驅馳’을 통해서 왕명을 띠고 만리 북경을 향하는 심정을 표현했다.
- 17) 劉暢·許敬震·趙季, 『韓國詩話人物批評集』 2, 보고사, 2012, p.518. “謫義州, 途中憶昆季, 詩曰, … 寄從弟咸昌守存慎, 詩曰, …”
또한 시의 끝에 ‘存慎問余從軍故云’이라는 自註를 첨부하여 ‘從軍’을 통해 죄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향을 묻은 存慎의 물음에 답한 내용을 밝혀, 유배시의 작품임을 보여준다.

로, 연행관련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품이다. 특히 국내 연행노정 중에 環翠樓, 大同江, 迎薰樓, 雲興館, 車輦館 등은 明使들도 경유하면서 주요 詩材로 등장하던 장소들이다.¹⁸⁾ 28번 작품은 전체적인 내용이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연행과 명확한 관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문집의 편차상 燕行詩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茶盤이나 다반에 그려진 그림을 소재로 하는 詠物詩나 題畫詩일 가능성이 높다.

31번~54번 작품은 연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31~32번 작품은 李穆과 수창한 작품으로 李穆이 1498년 戊午士禍 때 사형을 당하는데, 여름에 서로 만나서 수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행과 관련이 없다. 38번 작품은 成任의 시에 차운한 작품인데, 성임이 1484년에 사망했고 작품도 연행 이전인 寒食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역시 연행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52번~54번 작품은 내용상 유배시기 보다는 1484년 함양군수로 재임했을 당시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작품은 매계가 의주와 순천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에 창작된 작품으로, 연행과는 무관한 작품들이다.

다음으로 「연행록」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매계집』에서 연행관련 작품으로 선정해서 분석해야 되는 작품들을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2】 「燕行錄」外 燕行關聯 作品

연번	詩題	연행관련 작품	
		형식	선정 이유
1	通州	五言律詩	◦북경 인근의 도시, 夾註로 明의 지명임을 明記→매계의 작품이 아닌 李胄의 작품
2	松鵲山	六言絕句	◦東八站의 연행노정상에 있는 산

18) 신태영, 『明나라 사신은 朝鮮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운샘, 2005, pp.26~27 참조.

3	過諸葛亮墓	七言律詩	◦夾註에 燕行時의 御製應製詩로 밝힘
4	聞鄭子健 <small>錫堅</small> 赴洛 作詩寄之	七言絕句	◦1483년 chinusa 서장관 鄭錫堅을 위한 증별시
5	送權 <small>叔強</small> 赴燕京	七言律詩	◦1480년 주문사 서장관 權健을 위한 증별시
6	送金君節 <small>訥</small> 赴燕京	七言律詩	◦1481년 질정관 金訥을 위한 증별시
7	送崔判官 <small>有江</small> 赴燕	七言律詩	◦譯官 崔有江을 위한 증별시
8	送鄭子健 <small>錫堅</small> 赴燕	七言律詩	◦1483년 chinusa 서장관 鄭錫堅을 위한 증별시
9	送曹梅溪先生朝天序	贈序文	◦梅溪의 연행을 전송하는 洪貴達의 증서문

1번~3번 작품은 夾註로 燕行時에 창작하였음을 밝혔거나, 연행노정상의 장소로서 연행과의 관련성이 명확한 작품이다. 다만 1번 작품은 『續東文選』에 忘軒 李胄의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고,¹⁹⁾ 蛟山 許筠의 「惺叟詩話」²⁰⁾와 象村 申欽의 「晴窓軟談」²¹⁾ 등에서도 李胄의 작품으로 평론했기 때문에 『매계집』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4번~8번 작품은 매계가 연행을 앞둔 동료에게 증별하는 한시로 매계의 연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9번 작품은 虛白堂 洪貴達이 매계의 연행을

19) 徐居正 外, 『續東文選』 卷6, 「五言律詩」, p.18.

20) 許筠, 『惺所覆瓿稿』 卷25, 「惺叟詩話」, 「李胄詩沈着有盛唐風格」: “李忘軒胄詩最沈著, 有盛唐風格. … 其通州詩曰 通州天下勝, 樓觀出雲霄. 市積金陵貨, 江通楊子潮. 寒煙秋落渚, 獨鶴暮歸遼. 鞍馬身千里, 登臨故國遙. 亦咄咄逼王孟也.”

21) 申欽, 『象村稿』 卷52, 「晴窓軟談」 下. “我朝文章巨公, 非不蔚然輩出. 務爲專家, 至於取法李唐者絕少, 沖菴 忘軒之後 崔慶昌 白光勳 李達數人最著. … 忘軒詩曰 通州天下勝, 樓觀出雲霄. 市積金陵貨, 江通楊子潮. 飢鴉秋落渚, 獨鳥暮歸遼. 鞍馬身千里, 登臨故國遙. 亦可謂亞於沖菴矣.”

전송하는 증서류 산문으로 연행문학의 분석을 위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연행노정과 창작시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再編次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증별시와 증서문은 연행의 시작 전에 주고받는 작품이기 때문에 再編次 목록에서는 제외한다.

【표-3】 「燕行錄」編次的 再調整 目次

연번	詩 題	형식	편차 재조정 이유
1	宿碧蹄驛	七言律詩	
2	鳳山環翠樓 次張舍人城韻	七言律詩	
3	黃州次宋可中 賦韻留別	七言律詩	
4	附可中元韻	七言律詩	
5	遊大同江車門亭 奉呈觀察使 兼示同行諸君	七言律詩	
6	定州迎薰樓	七言律詩	
7	雲興館次金太僕 韻	七言律詩	
8	車輦館次金太僕 韻	七言律詩	
9	義州聚勝亭	七言律詩	
10	松鷲山	六言絕句	◦창작시기가 봄~여름
11	鳳凰山	七言律詩	
12	遼陽	七言律詩	
13	遼河源出塞外胡地	七言律詩	
14	凌河	七言律詩	
15	灞口漁舟	七言律詩	◦창작시기가 봄. 灞는 요동을 지나는 노정에 있음
16	東關途中	七言律詩	
17	山海關	七言律詩	
18	角山擁翠	七言律詩	◦창작시기가 봄. 각산은 산해관 인근지역
19	奉天殿早朝	七言律詩	
20	奉天殿賀萬壽節	七言律詩	
21	過諸葛亮墓	七言律詩	◦夾註에 燕行時의 御製應製詩로 밝힘
22	謁文丞相廟	七言律詩	
23	次董主事送別韻	七言律詩	
24	留別董主事	七言律詩	

25	次劉主事送行韻	七言律詩	
26	永濟驛樓卽事	七言律詩	
27	登漁陽崆峒山二首	七言律詩	
28	秦島仙跡	七言律詩	◦歸路에서는 진황도를 지나야 산해관에 도착
29	長城古堞	七言律詩	
30	石河秋漲	七言律詩	
31	茶盤霽雪	七言律詩	
32	南海澄清	七言律詩	◦碣石山 인근에 발해가 있음

위의 재편차 순서는 기본적으로 문집의 편차를 따르되, 연행노정과 창작시점이 명확히 드러난 6題의 작품의 경우는 순서를 재조정하였다. 우선 10번, 21번 작품은 「연행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작품으로, 연행노정과 창작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이다. 15번, 18번, 28번, 32번 작품은 창작의 시기나 공간적 배경을 근거로 재편차 한 것이다.²²⁾

이상으로 『매계집』의 연행관련 작품을 고찰해 보았다. 【표-3】에 제시된 31題 41首²³⁾의 작품과 증별시 5題 5首의 작품, 홍귀달의 증서류 산문 1편이 연행관련 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몇 작품은 편차순서도 조정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다만 위에서 분류하지 않은 작품 중에서 ‘義州統軍亭’, ‘途中憶諸兄’, ‘統軍亭 與盧承旨 曹順川 同賦’ 등 몇 작품은 공간적 배경이나 편차상 연행과 관련된 작품일 가능성도 있지만, 내용상 특정하기 어려워서 연행관련 작품에서 제외하였다.

22) 32번 작품은 내용상 창작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출발시기에 창작되었다면 15번 작품의 뒤에 위치해야 하지만, 문집의 편찬 순서를 따라 귀로에 창작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23) 4번 작품은 宋軼의 작품이기 때문에, 매계의 작품만으로 분류하면 31題 41首가 된다.

Ⅲ. 燕行詩의 作品世界

여행이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 낯선 세계, 미지의 세계와의 遭遇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행위이다. 그런 이유로 여행의 과정에서 창작된 紀行文은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니라 주체와 세계의 끊임없는 관계맺음의 흔적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내면의 기록인 셈이다.²⁴⁾

연행은 5~6개월의 기간 동안 국내외의 수천리 노정을 往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이므로, 이 과정에서 창작된 한시와 작품은 紀行文學으로 분류할 수 있다.²⁵⁾ 그러나 使命의 수행이라는 공적인 목적성이 강하고, 여행중 동료와의 시문 수창이 활발한 점은 연행이 일반 기행과는 구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매계의 「연행록」은 대부분 七言律詩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한시의 구성 요소는 크게 형식과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²⁶⁾ 작품세계에 대한 분석 및 감상은 결국 詩境에 드러난 내용 감상이 주가 된다. 시의 내용을 직접 감상하여 그것을 토대로 작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감정, 사상, 시적 경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본장에서는 매계 연행시의 내용 감상과 분석을 통해서 작품세계를 ‘觀光興懷의 稱歎과 鄉愁’, ‘交遊人士에 대한 勸勉과 敬慕’, ‘史蹟에서의 弔古와 鑑戒’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24) 이승원, 「근대전환기 기행문에 나타난 세계인식의 변화 연구」, 인천대 대학원(박사), 2007, pp.24~25 참조.

25) 최강현, 『한국기행문학연구』, 일지사, 1992, p.45 참조.

26) 黃永武, 『中國詩學』 鑑賞, 設計篇, 臺灣 巨流圖書公司, 1980. “作品形成的要素, 不外乎內容和形式兩方面.”

27) 李東宰,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p.113 참조.

1. 觀光興懷의 稱歎과 鄉愁

여행의 일차적인 체험은 觀光이다. 특히, 외국을 관광할 경우 異國 景物에 대한 체험은 여행의 美感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여행자는 기본적으로 名勝地를 관광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여행에 임하게 된다.²⁸⁾

매계도 ‘觀光은 본시 男兒의 일’이라고 하여²⁹⁾ 燕行을 통한 관광은 남아의 일로 자부하면서, 이국 경물을 관광하고자 하는 염원을 노정하였다. 그리고 성절사로 明의 경물을 관광하면서 칭탄의 감흥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정이 지날수록 旅路가 고단하게 느껴질 때, 또는 行路難에 봉착해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³⁰⁾

각산의 푸른 병풍

太行東尾疊晴旻	태항산 동쪽 등성이에 해가 떠오르자
直壓關門跨海濱	바로 관문을 압도하여 바다를 타고 넘네
夜月冷涵金沆瀣	밤 달빛은 싸늘하게 금빛 이슬을 머금고
春雲濃沫翠嶙峋	봄 구름은 짙푸른 산봉우리를 뒤덮었네
展開罨畫疑眞境	펼쳐진 그림같은 장면이 진경인가 의심스러운데
控扼雄藩隔虜塵	끼고있는 웅장한 변진은 오랑캐와 사이를 두고있네
欲借短筇凌鳥道	짧은 지팡이 빌려 가파른 산길을 오르려하나
可能扳袂羽衣人	날개 옷 입은 사람의 소매를 붙들고 가야하겠네 ³¹⁾

이 시는 매계가 角山을 보고 칭탄을 표현한 작품이다. 각산은 山海關 인근의 산으로 만리장성을 老龍으로 비유할 때, 용의 뿔에 해당하는 산

28) 拙稿, 「王亂 收拾期 使行文學 研究」, 공주대(박사), 2010, p.30 참조.

29) 曹偉, 『梅溪集』卷3, 「燕行錄」, ‘送崔判官’. “觀光自是男兒事 莫歎年年髀肉消”

30) 李東宰,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p.164.

31) 曹偉, 『梅溪集』卷3, 「燕行錄」, ‘角山擁翠’.

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首聯은 일출시 각산에서 바다쪽을 바라본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다만 太行山脈은 北京의 서북쪽을 감싸고 뻗어 있는 산맥이고, 각산은 連山山脈의 줄기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太行山이라는 표현은 매계의 誤認으로 보인다. 대구의 관문은 바로 만리장성의 東端 기점인 山海關을 가리킨다. 頤聯은 각산에 걸린 달빛과 각산의 푸르른 풍광을 올려보고 묘사하였다.

頸聯에서는 그림같이 펼쳐진 자연풍광에 대한 칭탄과 함께 각산의 산등성이로 이어진 만리장성이 華夷를 경계 짓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각산에 오르려 하되 너무 경사가 급해서 신선의 羽衣를 입은 사람을 붙들고서야 산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등산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소회를 표현했다.

「연행록」에 山海關 주위의 萬里長城, 角山, 石河 등의 풍광을 묘사한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매계는 특히 이들 장소를 觀光하면서 조선에서 접하지 못한 풍광에 칭탄의 흥회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국적 風光뿐만 아니라 처음 접한 中華文物에 대하여 기쁨과 감탄의 흥회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요양에서

安東都護古襄平	안동도호부는 옛날 양평 땅이요,
美壤每每接廣寧	아름다운 땅은 매양 광녕 땅에 접해 있네
王邴高風敦薄俗	왕병의 고풍은 경박한 풍속을 도탑게 하였고
段張遺烈化遐氓	단장의 유열은 먼 백성들을 교화시켰네
城圍月暈儲胥壯	성은 달무리가 에웠는데 성벽은 웅장하고
隊肅魚麗組練明	군대는 어리진이 엄숙한데 투구와 갑옷은 선명하네
依舊繁華一都會	옛날부터 변화한 도회지에 들어서니
角樓西畔暮笳聲	각루의 서쪽 언덕에선 저녁 피리소리가 들리네 ³²⁾

32) 曹偉, 『梅溪集』卷3, 「燕行錄」, ‘遼陽’.

이 시는 遼陽에서의 소회를 표현한 2수의 七言律詩 중에서 첫 번째 작품으로, 요양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대비되어 묘사되고 있다.

首聯은 지명의 변천과 지리적 위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요양은 漢代에는 ‘襄平’으로 명명되었고, 唐代에는 ‘安東都護府’로 명명되었다.³³⁾ 美壤은 비옥하고 넓은 땅을 말하는데, 이러한 미양이 광녕까지 넓게 펼쳐졌다고 표현하였다. 頷聯은 변경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의 풍속을 교화시킨 王邴과 段張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頸聯은 요양성과 陣法을 훈련하는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出구의 月暈은 달무리인데, 일반적으로 孤城을 의미하며, 儲胥는 담장이지만 여기서는 요양성의 튼튼한 성벽을 의미한다. 魚麗는 물고기 비늘처럼 군대를 배치하는 魚麗陣³⁴⁾이고, 組練은 투구와 갑옷을 말하는데 용맹한 정예병을 의미한다. 요양성은 요동벌을 지키는 외딴 孤城이지만 성벽은 튼튼하고 웅장하며, 성 밖의 教場에서 진법을 훈련하는 병사들도 모두 정예병으로 엄숙하고 씩씩한 위용이 빛난다고 묘사하였다. 『全遼志』의 ‘遼陽鎮境圖’를 보면 遼陽城의 남동쪽으로 朝鮮館(懷遠館)이 있고, 南門 아래로 教場(演武場)이 있기 때문에, 매계가 조선관에 머물면서 요양성과 군대의 훈련모습을 보고 그 소회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尾聯은 요양의 변화한 도회지 모습에 대한 칭탄의 소회를 표현하였다.

연행사들은 東八站의 마지막 驛站인 頭關站을 지나면, 遼陽城 南門인 安南門의 동남쪽 밖에 위치한 懷遠館³⁵⁾에 도착하게 된다. 요양은 燕巖

33) 『薊山紀程』 卷1, 「灣渡」, ‘癸亥年 十二月初二日’. “遼是朝鮮古界, 秦曰遼東, 漢曰襄平遼陽, 唐曰安東都護府, 遼曰東平鶴野, 又曰南平, 改曰東京, 元爲遼陽路輜蓋懿二州, 明日定遼衛, 東寧衛.”

34) 어리진은 전차 25乘을 偏으로 삼아 앞에 배치하고 甲士 5인을 伍로 삼아 뒤에 배치하는 陣法의 하나이다.(『春秋左傳』, 「桓公」 5年 注)

35) 燕行使들은 王祥嶺(王祥墓, 현재의 胡家溝), 石門嶺, 冷井村(王寶臺, 현재의 望寶臺村), 高麗村(현재의 前進村)을 거쳐 遼陽城 南門인 安南門의 동남쪽 밖에 위치한 懷遠館에 도착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東八站 구간의 여정이 마무리 되었다. 懷遠館은 金中淸이 사행했을 때에도 관사가 퇴락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明代 이후 이용하지 않은지가 400년도 넘는다. 현재 懷遠館이

朴趾源이 ‘好哭場’으로 명명했던 요동벌³⁶⁾이 시작되는 위치에 있으며, 요동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로 매우 변화한 도시였다. 또한 협소한 조선에 비하여 광대한 문명의 명에 대하여 동경의 대상이자 문화의 종주국으로서 경이로움으로 인식하는 의식 전환의 기점이 되는 도시였다.³⁷⁾ 이 작품에서도 변화한 요양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稱歎의 興懷를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매계의 ‘用典과 點化’의 修辭上 特徵이 잘 표현된 작품이기도 하다. 用典은 頷聯에서 볼 수 있는데, ‘王邴과 段張’³⁸⁾은 人名을 用事한 것으로, 용사는 매계를 포함한 성종조 문인들의 관심사였다.³⁹⁾

點化는 首聯과 頸聯에서 확인된다. 益齋 李齊賢의 “美壤每每接大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공장과 주택단지가 조성되어있고, 현지 주민들도 懷遠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구체적인 장소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 36) 요동벌은 연행사들이 요동 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국이 큰 것을 안다고 했던 별관으로 오늘날 공식 명칭은 遼河平原이다. 요하평원은 요하의 충적 평원이고, 동북평원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녕성을 관통한다. 이 평원은 요녕성 동부와 서부의 구릉지대에 끼어 있고, 북쪽은 松遼分水嶺에 닿아 있으며, 남쪽은 요동만에 임해 있다. 이 평원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평균 해발고도는 50m 이하이다. 요하의 入海處는 해발 10m 이하이다. 요하의 하류지역은 넓은 늪지로서 이곳이 바로 역사상 유명한 遼澤이다.(林文星, 『燕行錄에 나타난 遼寧認識의 樣相』, 韓國學中央研究院(석사), 2012, pp.15~16 참조.)
- 37) 林文星, 『燕行錄에 나타난 遼寧認識의 樣相』, 韓國學中央研究院(석사), 2012, pp.10~11 참조.
- 38) 王邴은 漢 獻帝 시기의 요동으로 피난왔던 선비인 王烈과 邴原을 가리킨다.(正祖, 『弘齋全書』 卷113, 『經史講義』 50, ‘漢獻帝’. “管寧, 邴原, 王烈并辟難遼東, 士之不幸耳. 然 至今人之過遼東者, 莫不指點咨嗟曰 是管寧, 王烈之所居也. 名流千秋, 地與人傳, 則亦不可謂不幸也. 但邴原以剛直難容, 逃歸而不知所之, 甚可惜也. 原之逃, 不必復入中國, 若不往濊貊則句驪也. 何以則知原之所終歟.”) 段張은 요양의 백성들을 교화시켰던 인물들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 39) 매계 시세계의 형식상의 분류와 수사상의 특징은 李東宰,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pp.87~112 참조.

東秦右臂北燕吭”⁴⁰⁾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매계는 ‘美壤每每接大行’라는 구절을 首聯의 대구에 그대로 換骨法으로 點化하고 있다.⁴¹⁾ 또한, 頸聯은 佔畢齋 金宗直의 “百城戍守儲胥壯, 一路將迎組練忙.”⁴²⁾과 “雲迷荒戍餘艫集, 草膩平原組練明.”⁴³⁾라는 詩句를 換骨법으로 點化한 것이다.

매계는 연행의 과정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

능하에서

清河之水綠如苔	맑은 능하의 물은 이끼처럼 푸르고
岸上荒祠枕水隈	언덕 위 무너진 사당은 물굽이를 베고 있네
風起沙窩塵瀆洞	바람은 모래 구덩이에서 끝없이 불어오고
煙橫野渡塔崔嵬	안개 깔린 들 나루에는 탑이 우뚝하네
儘教客裏容顏改	객지 생활은 나그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不管途中歲月催	도중의 세월은 빠르게 흘러도 상관하지 않네
東望滄溟一杯酒	동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한 잔 술을 마시는데
鄉關何處碧雲堆	고향땅은 어디메요? 높푸른 구름만 뭉게뭉게 피어오르네 ⁴⁴⁾

이 시는 매계가 凌河에서의 소회를 표현한 작품이다. 능하는 대릉하와 소릉하로 구분되는데, 錦州 주위를 흐르는 강이다.

首聯과 頤聯은 능하에서 바라본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오랜 시간 연행을 통해서 객지생활을 하는 고충을 토로하고, 尾聯에서

40) 李齊賢, 『益齋亂稿』 卷2, 「詩」, ‘涿郡’.
 41) 梁光錫 編譯, 『漢詩論의 理解』, 민족문화문고, 2006, pp.282~283. “黃庭堅, 「答洪駒父書」, 古之能文章者 眞能陶冶萬物 雖取古人之陳言 入於翰墨 如靈丹一粒 點鐵成金也. 不易其意而造其語 謂之換骨法 夫見摹其意形容之 謂之奪胎法”
 42) 金宗直, 『佔畢齋集』 卷23, ‘送表少游以平安道翻庫御史, 往江界 龜城 義州等邑.’
 43) 金宗直, 『佔畢齋集』 卷4, ‘董戎樓四時, 用鄭觀察使文炯.’
 44) 曹偉, 『梅溪集』 卷3, 「燕行錄」, ‘凌河’.

는 시름을 달래려고 술 한잔 마시면서 고향땅을 바라보고 향수에 젖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연행은 왕환에 5~6개월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여행으로 오랜 여행과 객지생활에서 오는 고단함,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鄉愁感을 자아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頸聯은 杜甫 ‘登高’詩의 “萬里悲秋常作客 百年多病獨登臺”의 출구와 비슷한 정서를 노정하고 있다. 淸 仇兆鰲는 『杜詩詳注』에서 여덟 개의 悲感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⁴⁵⁾ 매계도 먼 여행노정과 오랜 나그네 생활의 고단함을 통해서 향수와 비감을 노정하고 있다.

이상으로 ‘觀光興懷의 稱歎과 鄉愁’를 노정한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다. 매계는 연행을 앞둔 동료들에게 증별하는 작품을 통해서 연행에서의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이를 통해서 참신한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열망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연행에 임해서는 이국적인 경물을 접하게 되면 칭탄의 情感을 노정 하였다. 특히 산해관 인근 지역에서의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산해관, 만리장성 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화한 도시를 방문하면서는 명을 증화로서 인식하였다. 다만, 오랜 여행노정에서 오는 行路難에 봉착하면 鄉愁感을 숨기지 않는 인간적인 면모도 확인 할 수 있다.

2. 交遊人士에 대한 勸勉과 敬慕

여행이 갖는 의의는 觀光의 체험과 함께 여행을 통해 만나게 되는 人士들과의 交遊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人士들과의 交遊는 서로 상이한 가치와 문화의 만남을 통해서 여행의 내면적 깊이를 더해주는 의의가 있다.

연행사로 선발이 되면 지인들이 壯途를 염원하며 연회를 베풀고 증별

45) 宋載弼의 5인 譯註, 『譯註 唐詩三百首』 2, 傳統文化研究會, 2011, pp.273~274 참조.

시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조선시대는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사행이 거의 유일하였기 때문에, 외국 인사와의 교류는 주로 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⁴⁶⁾

황주에서 송가중의 시에 차운하여 남는 사람에게 작별인사를 하다.

鶯花撩亂客愁邊	피꼬리가 요란하게 울어 객수를 자아내는데
到處樓臺敲錦筵	이르는 곳마다 누대에는 비단자리가 깔려 있네
臨水登山聊復爾	임수등산은 애오라지 더욱 좋은데
思鄉戀闕却茫然	고향생각, 임금 생각에 도리어 망연해지네
齊安此日懷蘇子	제안 땅에서 이날 소식을 생각하는데,
句漏何時問稚川	구루 땅에서 어느 때 치천에게 물어볼까?
珍重贈言情不淺	진중히 말로 전송하니, 그 정은 알지 않으니
緜袍偏感主人賢	제포의 정에 한편으로 주인의 덕에 감사하네. ⁴⁷⁾

이 시는 당시 황해도 관찰사로 있었던 宋軾이 매계의 연행을 위해서 증별한 시에 차운하여 餞別客들에게 작별인사를 한 작품이다. 黃州는 燕行使가 赴京하는 과정에서 外交文書의 查對 절차가 진행되던 黃州·平壤·義州 중의 한 곳이며,⁴⁸⁾ 많은 사람들과 전별의 자리가 있었던 장소였다.

首聯에서는 피꼬리가 울어 客愁를 느낄 때 경치 좋은 정자에서 전별연을 베풀어 위로해 주었음을 표현하였다. 頷聯에서는 좋은 경치를 볼수록 고향과 임금 생각이 더해진다고 하여 연행을 무사히 다녀올 것과 사명완수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頸聯에서는 齊安은 황주의 옛 지명으로 蘇軾의 유배지였던 중국의 황주와 지명이 같다. 지명을 통해서 소식과의 관련성을 찾고 그리워하는

46) 拙稿, 「壬亂 收拾期 使行文學 研究」, 공주대(박사), 2010, p.49 참조.

47) 曹偉, 『梅溪集』卷3, 「燕行錄」, ‘黃州 次宋可中韻 留別’.

48) 李善洪, 「朝鮮時代 對中國 外交文書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博士), 2005, pp.218~222 참조.

모습을 통해서 ‘學蘇入杜’를 추구했던 매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句漏는 抱朴子 葛洪이 수령을 자원해 갔던 베트남 북부 지역으로 갈홍이 金丹을 만들던 장소이고, 稚川은 갈홍의 字이다. 중국의 句漏에서 葛洪에게 영생불사의 仙術을 배우고 싶다는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尾聯은 진중한 말로 전송하는 동료의 깊은 정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緋袍는 정답게 지내던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전국 시대 때 魏 나라 須賈가 옛 친구인 范雎에게 따뜻한 솜옷[緋袍]을 주었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⁴⁹⁾

이 작품은 전별객들에게 감사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頸聯과 尾聯에서 많은 用事를 통하여 주제의식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계는 5題의 증별시를 통해서 勸勉과 연행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정자건이 낙양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주다.

西掖翠幄隔霧看	서쪽 궁궐 창문으로 안개 속을 바라보니
宮槐葉落曉光寒	궁중의 화나무는 잎이 지고 새벽 달빛 싸늘하네
秋風江海金龜鱗	가을 바람에 강과 바다에는 금계옥회가 있건만
爲問何如苜蓿盤	문노니 목숙 밥상만 하겠는가? ⁵⁰⁾

이 시는 1483년 千秋使의 書狀官으로 연행한 寒碧齋 鄭錫堅을 위한 증별시이다. 上聯에서는 가을에 연행을 출발하기 전의 안개 낀 새벽 궁궐의 풍광을 담백하게 묘사하고, 下聯에서 蘇軾같은 높은 품격을 갖고 있는 그대가 사명을 완수하고 고향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작품은 허균의 『國朝詩刪』에서 격조가 탁월[調越]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작품으로 여기에서도 奪胎法으로 點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 『史記』, 「范雎蔡澤列傳」.

50) 曹偉, 『梅溪集』卷1, 「七言絕句」, 「聞鄭子健赴洛 作詩寄之」.

蘇軾의 “莫將南海金蠶膾，輕比東坡玉糝羹”⁵¹⁾에서 상구의 ‘南海’를 매계는 ‘江海’ 바꾸었고, ‘玉糝羹’은 그 意境을 점화하여 ‘苜蓿’으로 바꾸고 ‘소나말이 먹는 사료’라는 말을 ‘고향에서 늘 먹는 밥’을 의미하는 새로운 시어로 만들어 냈다.⁵²⁾

또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送權 叔強 赴燕京’의 頷聯에서 “운우를 가지고 청춘마에 머물지 말게. 눈 비비고 보니 강산은 붓끝으로 들어오리니.”⁵³⁾라고 표현하였다. ‘送鄭子健 錫堅 赴燕’의 尾聯에서는 “풍광이 또렷하여 사물들을 시의 소재로 삼을 만하니, 분명 그대는 새로 시를 읊느라 침이 튀기리라.”⁵⁴⁾라고 표현함으로써 연행의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학문과 문학적 성취를 높일 수 있기를 권면하였다.

이처럼 매계의 증별시는 주로 사명의 완수, 연행을 통한 학문이나 문학적 역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에 대한 권면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경에서 明의 人士인 董忱, 劉吉과도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사 동침과 작별하며

醞籍斯文有此賢	드넓은 사문에 이 같은 현자가 있어
江都事業政堪傳	강도의 사업을 바로 전할 수 있었네
天人學邃應無有	타고난 학문이 깊어 상대할 자가 없으며
山斗名高孰可肩	태산북두와 같은 고명을 누가 견줄까
落落風儀驚邂逅	뛰어난 풍모는 만날 때마다 놀라게 하고

51) 蘇軾, 『蘇東坡詩集』 卷41, ‘過子忽出新意以山芋作玉糝羹色香味皆奇絕天上酥陀則不可入人間決無此味也’. “香似龍涎仍醞白, 味如牛乳更全清. 莫將南海金蠶膾, 輕比東坡玉糝羹.”

52) 李東宰,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p.101.

53) 曹偉, 『梅溪集』 卷2, 「七言律詩」, ‘送權 叔強 赴燕京’. “莫將雲雨留驄馬 剩括江山入綵毫.”

54) 曹偉, 『梅溪集』 卷2, 「七言律詩」, ‘送鄭子健 錫堅 赴燕’. “風光歷歷堪題品 應把新詩唾玉津.”

溫溫笑語暫周旋	따스하게 미소 띤 말씀은 곧 바로 돌아오네
一言珍重蒙殊顧	한 마디 말도 진중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
千里分携倍黯然	천리 길로 헤어짐에 마음은 더욱 어두워지네 ⁵⁵⁾

이 시는 매계가 북경에 있을 때 明의 禮部 兼 主事인 동침과 작별하면서 수창한 작품이다. 동침에 대해서는 제목의 협주에 ‘명나라의 명유로 문장에 능하고 성리학을 아는 사람으로 동중서의 후손으로 추정되며, 매계의 시를 보고 칭찬하고 증별시를 보내서 화답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위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首聯, 頷聯, 頸聯은 동침에 학문, 풍모, 인격에 대하여 경모로 일관하고 있고, 尾聯에서는 헤어짐에 대한 아쉬운 감정을 노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사와의 교류에서는 주로 칭송과 경모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외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觸諱를 의식한 작시태도로, 연행시 가운데 외국인과의 교류시는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상으로 ‘交遊人士에 대한 勸勉과 敬慕’의 소회를 표현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虛白堂 洪貴達은 ‘送曹梅溪先生朝天序’에서 연행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관광을 통해서 性情에 감회가 일어나 자연스레 시문의 창작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였다.⁵⁶⁾ 매계도 교유인사들의 증별시를 통해서 異國景物의 觀光이나, 이를 통한 새로운 詩作의 계기로 삼을 것을 권면하곤 하였다.⁵⁷⁾ 새로운 경험이 성정에 감회를 일으켜 자연스

55) 曹偉, 『梅溪集』卷3, 「燕行錄」, ‘留別董主事’. “董忱, 蓋大明名儒, 能文章, 識性理, 疑仲舒之後也. 一見先生詩, 大加稱贊, 詩以送別, 故先生以詩答之. 董詩不傳, 惜哉.”

56) 曹偉, 『梅溪集』卷5, 「附錄」, ‘送曹梅溪先生朝天序’. “其肯局於一方, 安於坐井乎. … 燕昭之金臺, 周宣之石鼓, 昌黎之山斗, 孤竹之清風. 莫不徙倚摩挲, 瞻仰咨嗟. 乃若祿山之橋, 丁仙之表, 亦皆弔古興懷, 發於性情, 形於諷詠, 其所得又豈不萬萬哉.”

57) 매계 자신도 觀光은 훌륭한 詩料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다. (曹偉, 『梅溪集』卷3, 「燕行錄」, ‘雲興館 次金太僕韻’. “才短可堪專對使, 眼

럽게 창작으로 이어진다는 이러한 관점은 문장이 성정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文以載道論의 認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⁵⁸⁾

또한 북경에서 교유한 인물에 대해서는 인품과 학식에 대하여 敬慕의 마음을 드러냈다. 원래 ‘人臣無外交’⁵⁹⁾의 원칙에 따라 燕行使들은 중국의 인사들과 시문을 수창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교유의 흔적이 볼 수 있다. 다만 시문의 주제와 내용이 다분히 稱頌과 敬慕로 일관하는 경향은 創作動因에 외교라는 특수한 상황이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史蹟에서의 弔古와 鑑戒

歴史는 현재의 일부인 인간과 과거로부터 전해져오는 事實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 없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⁶⁰⁾ 따라서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결코 단지 일방적인 과정은 아니다. 과거의 빛에 비추어서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동시에 현재의 빛에 비추어서 과거를 배운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양자를 보다 깊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점에 있는 것이다.⁶¹⁾

또한 어떤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며, 이 해석이라는 요소는 역사의 모든 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⁶²⁾

前詩料卷包羅”

58) 매계는 文以載道論의 입장과 함께 文 또한 道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道文并重의 입장을 주장하였다.(李東宰,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p.73 참조.)

59) 『禮記』, 「郊特生」 8. “爲人臣者無外交 不敢貳君也”

60) E.H.CARR · 김승일 역, 『역사란 무엇인가』, 범우사, 1996, p.53 참조.

61) E.H.CARR · 김승일 역, 『역사란 무엇인가』, 범우사, 1996, p.119 참조.

62) E.H.CARR · 김승일 역, 『역사란 무엇인가』, 범우사, 1996, p.22 참조.

그러므로, 작가의 역사관과 함께 역사적 현장의 직접 체험은 기존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재해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⁶³⁾

역사적 문헌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사를 회고하고 시를 짓는 경우는 다분히 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관념적인 측면이 앞서 規戒와 諷刺로 일관하는 詠史가 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 현장에 임하여 시를 읊는 경우는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감정의 표출과 함께 자신의 歷史觀으로 기존의 평가를 再認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⁶⁴⁾

연행노정에서는 주필산, 산해관, 만리장성, 진황도, 이계묘 등의 장소는 역사적 弔古와 鑑戒를 드러내는 대표적 장소였다.

진황도의 신선의 흔적

祖龍當日遠鳴鑾	진시황 때에는 멀리서 천자의 말방울이 울렸는데
孤島微茫枕碧灣	고도는 아득하고 푸른 물굽이만 길게 놓여있네
海上若爲尋祕訣	바다에서 만약 비결을 찾았다면
人間安得駐昭顏	인간 세상에서 어찌 사당의 초상에만 머물었겠나
羨門瓜棗終難遇	선문자와 과조는 끝내 만나기도 어렵고
徐市樓船竟不還	서불을 태운 큰 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네
往事繆悠堪一笑	지난 일이 아득하여 한바탕 웃음 웃는데
岸花汀草自斑斑	언덕의 꽃과 물가의 풀들은 스스로 아롱지네 ⁶⁵⁾

이 시는 진황도를 지나면서 진시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首聯에서는 진황도에 전해져 오는 진시황의 전설과 진황도의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진시황이 신선이 되고자 했던 고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신선이 되는 비결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인간 세상인 진황도의 ‘始皇廟’에 초상화로만 남아 있는 상황에

63) 拙稿, 「壬亂 收拾期 使行文學 研究」, 공주대(박사), 2010, p.73 참조

64) 嚴慶欽, 「韓國使行詩研究」, 동아대(박사), 1993, p.30.

65) 曹偉, 『梅溪集』卷3, 「燕行錄」, ‘秦島仙跡.’

대해서 기롱하고 있다.

頤聯에서 羨門子와 瓜瓞는 신선, 또는 신선을 만나는 일을 의미하고, 徐市은 불로장생약을 찾아 삼신산으로 떠났던 方士이다. 진시황이 결국 신선을 만나지도 못하고, 불로장생약을 찾지도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尾聯에서는 진시황의 부질없는 人事와 자연의 연약한 꽃과 풀을 대비시켜 진시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일반적인 燕行詩에서는 秦始皇에 대하여 부분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⁶⁶⁾ 매계는 이 작품을 통해서 진시황이 신선이 되어 불로장생하고자 부질없는 욕심에 대해서는 비판과 기롱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리장성에 대해서는 비판의식의 차이점이 보인다.

만리장성의 오래된 성가퀴

茫茫松塞限龍沙 아득한 松塞는 龍沙에 막혀있고
 東入滄溟萬里賒 동쪽 푸른 바다로 만 여리를 뺏어있네
 鞭石幾回穿后土 돌에 채찍질하여 여러 차례 后土를 뚫으며
 塹山直欲鬪夸娥 산을 파내 직접 夸娥와 다투고자 하였네
 長令戍卒韜戈睡 군사들에게 명하고 창을 내려놓고 잠이 드는데
 無復胡兒飲馬過 오랑캐들도 말에게 물 먹이려 지나가지도 않네
 萬古金湯天設險 만고의 금성탕지가 천연의 험준함에 의지했으니,
 鴻功留與後人誇 커다란 공훈을 후인에게 자랑할 만하네⁶⁷⁾

이 시는 만리장성을 바라보고 소회를 표현한 작품이다. 首聯에서는 서북쪽의 고비사막인 龍沙부근부터 만리장성이 시작하여 동쪽으로 滄溟까지 만 여리나 뺏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頤聯에서는 만리장성의 축성과정에 대한 묘사이다. 출구에서 鞭石은 신선이 돌을 채찍질해

66) 嚴慶欽, 『韓國使行詩研究』, 동아대(박사), 1993, p.45.

67) 曹偉, 『梅溪集』卷3, 『燕行錄』, ‘長城古堞.’

서 돌에서 피가 흘렀다는 고사를 用事하여 축성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했음을 표현하였다. 대구는 愚公移山의 고사를 用事하여 장성의 축성이 太行山과 王玉山을 옮기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大役事였음을 표현하였다. 頷聯은 장성을 지키는 군사에게 편안히 있도록 명령한다고 해도, 감히 오랑캐들이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함을 묘사하였다. 尾聯에서는 험준한 지형을 따라 쌓은 만리장성이 금성당지가 되어 후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었음은 진시황의 자랑할 만한 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만리장성은 동쪽 山海關에서 서쪽 嘉峪關까지 직선 길이 약 2700km에 걸쳐 완성된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의 결정체이며, 秦始皇의 폭정에 대한 대표적 表象이기도 했다. 그러나 만리장성의 威容을 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연행사들은 만리장성의 효용적 가치와 웅장한 규모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만리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재인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⁶⁸⁾

매계도 전반부에서는 만리장성의 규모와 축성과정의 고통에 대한 묘사를 통해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나, 후반부에서는 만리장성 덕분에 오랑캐들이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니 남겨진 공이 작지 않다고 긍정적인 평가로 마무리 하고 있다.

이것은 진황도에서 진시황에 대한 평가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축성의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축성된 만리장성은 후손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해 줌으로써, 백성들과 중화문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이자 華夷의 경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만리장성의 關防上 效用價値에 대한 긍정인 것이다.⁶⁹⁾

68) 拙稿, 「王亂 收拾期 使行文學 研究」, 공주대(박사), 2010, p.85 참조.

69) 洪良浩, 『耳溪集』 卷13, ‘山海關記’. “秦皇懲其然也, 北逐匈奴二千里, 大築長城, 以限內外. 自是之後 楚漢之際, 天下雲擾波盪, 而胡人不敢南下而飲馬. 雖以臧荼, 盧綰之庸才, 猶能保有其封疆, 此秦皇之餘威也. 下逮漢唐以後, 中國

두 번째로 벽돌로 웅장하게 축성된 만리장성을 先進文物의 表象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많은 연행사들이 중국의 城制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조선 중기 於于堂 柳夢寅은 3차례의 연행체험을 바탕으로 明의 선진문물을 읊은 ‘中州雜詠’ 18수의 작품 중에서, 明의 ‘城池’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다.⁷⁰⁾

세 번째로 만리장성의 축성공사가 明代에도 활발히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기실 明은 鎖國政策을 基調로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토목공사를 벌인 왕조였다. 만리장성의 주요 관문인 산해관도 明 洪武 17년(1384)에 대장군 徐達이 榆關을 옮겨 다섯 겹의 성을 쌓아서 완성한 것이며,⁷¹⁾ 現存하는 만리장성은 주로 明代 후반기에 축조된 것이다. 燕行詩에서 만리장성에 대한 비판이 제한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어양 공동산에 올라

往事無窮感慨多	지난 일에 한없이 감개가 넘쳐나는데
登高能賦奈吾何	내 어찌 공동산에 올라 시를 읊지 않으랴?
北連上谷關防壯	북으로 이어진 상곡의 관방은 웅장하고
南望中原道路賒	남으로 바라보니 중원의 길은 아득하구나
安史兵塵曾瀕洞	안사의 난으로 일찍이 혼란스러웠건만
遼金風氣旋消磨	요금의 풍속은 도리어 소멸되었네

至今賴爲藩籬，關外遼薊之地，亦入版圖者，是誰之功也。… 然中國有主，則輒捲甲而避之，長城之限自如也，豈不爲萬世之利耶。”

- 70) ‘中州雜詠’은 柳夢寅이 중국의 문물 중에서 인상 깊었던 18가지 문물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을 표현한 連作詩로서, 柳夢寅의 실용적 경세관과 실학적 인식의 萌芽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이승수, 「柳夢寅의 연행 체험과 중국 인식」, 『東方學志』 제136집, 2006, p.336 참조.)
- 71) 朴趾源, 『熱河日記』, 「駙汎隨筆」, 『山海關記』. “山海關, 古榆關. 王應麟地理通釋云, 虞之下陽, 趙之上黨, 魏之安邑, 燕之榆關, 吳之西陵, 蜀之漢樂, 地有所必據, 城有所必守. 皇明洪武十七年, 大將軍徐達, 移榆關於此, 築五重城, 名之曰山海關.”

如今宇內陶皇化 지금은 온 나라 안이 요임금의 교화를 입어
到處欣聞擊壤歌 이르는 곳마다 흡족한 격양가가 들리네⁷²⁾

이 시는 漁陽의 崆峒山에 올라 역사 현장에 대한 弔古의 소회를 표현한 2수의 七言律詩 중에서 첫 번째 수이다. 공동산은 黃帝가 신선 廣成子에게 도를 물었던 石室이 있는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 石山으로, 府君山으로도 불렸다.

首聯에서는 역사에 대한 感慨로 공동산에 올라 시를 읊게 되었다는 창작의 배경을 밝혔다. 頷聯에서는 공동산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보이는 경치를 묘사하였다. 上谷은 어양 북쪽의 지역으로 燕의 장수 秦開가 장성을 쌓고 遼東郡을 설치했던 곳이다. 頸聯에서는 어양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였다. 어양은 안록산이 처음으로 난을 일으킨 장소였으며, 요와 금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였다. 尾聯에서는 현재는 훌륭한 황제의 교화로 擊壤歌가 울리는 태평성대가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다.

매계가 『杜詩諺解』를 편찬하는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서문을 쓴 것으로 보아 杜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나아가 시의 典範을 두시에 두고, 杜甫의 경지에 오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⁷³⁾ 일반적으로 평범한 공간이 전설과 역사 등과 관련이 되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장소감을 갖게 된다.⁷⁴⁾ 따라서 두보의 시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안사의 난’이 발발한 현장을 지나면서 弔古의 감개가 일어나 작품을 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승상의 사당을 참배하며

丞相祠堂何處尋 승상의 사당은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나?

72) 曹偉, 『梅溪集』 卷3, 「燕行錄」, ‘登漁陽崆峒山.’

73) 李東宰,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pp.244~245.

74) 이-푸 투안 지음, 구동회·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2007, pp.16~18 참조.)

天街北畔鳳城陰	천가의 북쪽 궁궐 뒤편에 있네
清風肅肅廟庭邃	청풍이 조용히 묘정 깊숙한 곳으로 부는데
遺像堂堂歲月深	남겨진 초상은 오랜 세월동안 당당히 서 있네.
去國肯搖蘇武節	도성을 떠났던 소무의 절개보다 높았고,
存劉不愧孔明心	축한을 보존했던 제갈량의 충심에도 부끄럽지 않네.
百年忠義留天地	백년의 충의가 천지에 남아있어
烈日秋霜照古今	뜨거운 태양과 가을 서릿발로 고금을 비추네. ⁷⁵⁾

이 시는 북경의 文天祥 사당을 참배하고 소회를 표현한 5수의 七言律詩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이다. 문천상은 중국 南宋 말기의 재상이자 시인으로 元에 대한 저항과 남송에 대한 충의를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다. 明 洪武 9년(1376)에 북경의 順天府學 옆에 사당이 세워졌고, 永樂 6년(1408)부터 봄·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首聯은 突兀한 물음과 답을 통해서 문천상 사당을 찾아가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頷聯은 사당의 뜰과 남겨진 초상으로 사당의 대표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肅肅과 堂堂이라는 疊語를 통해서 엄숙한 사당의 분위기와 당당한 초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⁷⁶⁾ 頸聯은 문천상의 충의야 말로 蘇武의 節概와 제갈량의 忠心보다 더 뛰어나다고 칭송하였고, 尾聯에서는 평생의 忠義가 천지에 남겨져서 태양과 서릿발처럼 당당한 절개로 고금을 비춘다고 평가하였다.

이 작품은 文天祥에 대한 詠史詩로서, 문천상의 충의에 대한 頌讚은 결국 매계 본인의 衷情의 다짐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매계시의 修辭上의 특징인 用典, 點化, 疊語의 사용을 모두 담고 있는 점이 주목이 된다.

먼저 이 작품은 杜甫의 ‘蜀相’⁷⁷⁾의 체제를 그대로 點化하고 있다. ‘蜀

75) 曹偉, 『梅溪集』 卷3, 「燕行錄」, ‘謁文丞相廟.’

76) 첩어의 詩의 기능 중에 생동하는 힘을 시에 나타낼 수 있고, 독자들을 驚動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鳴鐘을 울리기도 하는 기능이 있다.(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同和出版公社, 1984, pp.56~57 참조.)

相'은 下平聲인 '侵' 韻目的 '尋, 森, 音, 心, 襟'이 운자인데, 이 작품도 같은 '侵' 韻目的 '尋, 陰, 深, 心, 今'을 운자로 사용하였고, 시상의 전개도 두 작품 모두 '승상사당 찾아감-사당의 모습-역사 회고-鑑戒'로 구성되었다. 특히 首聯은 '蜀相'의 '丞相祠堂何處尋 錦官城外柏森森'에서 출구는 그대로 인용하였고, 대구는 意境이 통하도록 點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文天祥의 충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19년간 흉노에 억류되었어도 漢에 대한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蘇武와 蜀漢의 兩대에 걸친 충신인 諸葛亮을 '用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계는 첩어를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도 '肅肅', '堂堂' 같은 첩어를 사용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상으로 '史蹟에서의 弔古와 鑑戒'를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서 매계의 회고와 역사인식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매계는 진시황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秦皇島에서는 전통적인 부정적 인식을 계승하였지만, 만리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진시황의 功過에 대한 냉정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만리장성에 대해서는 매계를 포함한 연행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이유는 관방의 효용성, 선진 문물로서의 상징과 더불어 明代 후반까지 장성의 축성이 지속되었던 시대상황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장소를 지날 때에는 弔古와 鑑戒를 드러냈는데, 『두시언해』의 편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매계가 어양을 지나면서는 '안록산의 난'의 최초 발발지로 인식하고 감개함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인물인 문천상의 사당을 참배하면서 문천상의 충의를 蘇武와 諸葛亮보다 훌륭하다고 尊慕와 鑑戒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매계는 史蹟과 역사적 장소를 經過하면서 단순히 弔古의 感傷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사의 비판적 인식과 재평가를 통해서 溫故知新과 前轍不踏의 鑑戒

77) 杜甫의 '蜀相'은 "丞相祠堂何處尋, 錦官城外柏森森. 映階碧草自春色, 隔葉黃鸝空好音. 三顧頻煩天下計, 兩朝開濟老臣心. 出師未捷身先死, 長使英雄淚滿襟."이다.

를 얻고자 했다.

IV. 文學的 意義

일반적으로 문학의 가치는 작품 자체로서의 가치와 세상을 위한 가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작품 자체로서의 가치는 인식의 발전이 인정될 때 논의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을 위한 가치는 역사의 발전이 인정될 때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⁷⁸⁾

매계의 문학사적 위치는 조선 전기 詞章 중심의 문학에서 中宗朝 이후 사림과 중심의 道學文學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媒介者 역할을 하였고,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주도하였으며, 海東江西詩派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⁷⁹⁾ 즉 조선 전기 文風의 전환에 주도적인 매개자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매계의 문학사적 위치를 바탕으로 그의 연행문학의 문학적 의의를 작품세계와 연행문학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燕行詩는 蘇軾 및 江西詩派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한시의 형식은 칠언율시가 대부분이고, 수사상 用典과 換骨奪胎法 등이 자주 사용되었다.

한시의 형식상 五言律詩는 한시의 正統, 典雅한 표현감각을 대표한다면, 七言律詩는 壯麗, 典麗한 감각 및 명확한 對偶性을 대표한다. 특히 칠언율시는 對偶化, 整合化, 自己完結化라는 동양인의 사고 형태를 가장 명확하게 구현한 시형식이기 때문에⁸⁰⁾ 한시에서 서정성과 예술성의 측면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은 시형식으로 평가된다. 또한 江西詩派는 황정건이 詩宗이 되고 杜甫를 추승했는데,⁸¹⁾ 두보는 칠언율시를 유행시키고, 황정건은 칠언율시로 유명했다.⁸²⁾ 따라서 매계는 燕行時 서정적 소

78) 조동일, 『문학 연구 방법』, 지식산업사, 2004, pp.247~248 참조.

79) 李東宰,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pp.211~213 참조.

80) 申用浩 編述,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2, pp.136~137 참조.

81) 林鍾旭 편, 『中國文學 批評用語辭典』, 이회, 2011, pp.17~18 참조.

회의 표현과 황정건의 詩歌 이론의 반영에 가장 적합한 시형식인 칠언 율시로 燕行詩를 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매계의 연행시는 조선 전기 대부분의 연행록이 한시위주로 구성된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특히 칠언율시의 비중이 다른 연행록에 비하여 높다. 逸失된 작품이 많기 때문에 칠언율시의 비중이 높은 것을 언급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강서시파에 대한 관심과 성절사로 연행했기 때문에 서정성이 높은 칠언율시 위주의 작품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⁸³⁾ 또한 동료들과의 수창도 주로 칠언율시로 이루어진 점과 ‘調文丞相廟’같은 懷古·詠史詩의 경우 장편의 排律이 아닌 5수의 連作詩로 창작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일실된 작품들도 칠언율시로 창작된 작품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상 用典과 換骨奪胎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송대 성리학자들이 평이한 시를 추구하여 典故의 사용에 비판적이었지만, 매계는 蘇軾과 江西詩派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자유롭게 용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人物을 전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환골탈태법도 과감하게 활용하여 自成一家를 추구하고자하는 노력이 보인다.⁸⁴⁾ 매계는 궁극적으로 ‘由蘇入杜’을 추구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燕行詩에서 杜甫의 작품을 환골탈태로 점화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계는 益齋나 佔畢齋같이 우리나라 선배나 스승의 작품을 환골탈태로 점화함으로써 과감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인의 문학적 역량에 대한 가치를 긍정하고 점화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82) 邱燮友 注譯, 『新譯 唐詩三百首』, 臺灣 三民書局印行, 2005, pp.339~340 참조.

83) 매계의 성절사행 일정을 보면 4월 11일에 한양을 출발하였는데, 明 孝宗의 萬壽節은 7월 3일이었다. 일반적으로 한양에서 북경까지 약 2달 정도의 여정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북경에 이르는 여정은 비교적 여유로운 일정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4) 林鍾旭 편, 『中國文學 批評用語辭典』, 이희, 2011, p.19 참조.

매계가 유배시 海東西詩派의 스승이된 虛庵 鄭希良과의 영향관계나 『梅溪叢話』의 내용에서 보여준 강서시파에 대한 관심은 이미 燕行詩에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매계의 강서시파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연행시기에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매계가 심적으로 부담이 덜한 성절사로 연행한 것이 문학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의 기회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매계 燕行詩는 적극적인 교유 관계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행시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 개인적 감정의 표출과 둘째, 외교상의 효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원적인 시의 창작은 일반적인 기행시와는 다른 연행시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⁸⁵⁾ 매계의 연행시는 조선전기 연행시의 典範的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국내 노정에서 많은 동료문인들과 수창을 했으며, 북경에서도 明의 주요 인사들과 교유했음을 알 수 있다. 外國에 대한 관심 즉, 他者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對他的 自我認識을 통한 세계관의 확대와 새로운 시대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특히 외국 인사와의 交遊는 여행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발견과 아울러 自意識에 대한 再認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⁸⁶⁾

董忱과 劉吉과의 교유시 협주에 매계를 칭송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은 매계가 문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유를 했고, 이를 통해서 ‘以文華國’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매계가 문장을 통한 王化의 頌讚과 黼黻王猷가 자신의 역할이라고 自任했던 생각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⁸⁷⁾

다만 매계의 연행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서장관 鄭承祖와의 교유시가 보이지 않는다. 정승조도 점필재의 문인이었으므로 매계와 同

85) 嚴慶欽, 「韓國使行詩研究」, 동아대(박사), 1993, p.29 참조.

86) 拙稿, 「壬亂 收拾期 使行文學 研究」, 공주대(박사), 2010, pp.60~61 참조.

87) 李東宰, 『매계 조위의 삶과 문학』, 보고서, 2004, pp.66~67 참조.

學이며, 매계와 함께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郭山으로 定配된다. 따라서 매계와 연행 중에 많은 교유시를 수창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전부 일실된 상태다.

V. 結論

본고는 매계의 연행시를 위주로 그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앞장의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먼저 「연행록」의 선별 및 재편차에서는 연행록의 명칭문제와 연행 관련 작품들을 고증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매계집』의 「연행록」이라는 명칭은 문집이 간행되었던 1718년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대중국 사행록에 대한 일반적 명명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1636년 이전에 간행되었다면 「朝天錄」, 「朝天詩」 등의 명칭을 사용했을 것이다.

연행관련 작품을 연행기간, 연행노정, 교유시기 등을 근거로 고찰해 보았다. 기존 「연행록」의 54題 73首의 작품 중 31題 41首의 작품이 연행관련 작품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연행문학의 성격을 고찰하기 위해서 증별시 5題 5首의 작품, 홍귀달의 증서류 산문 1편을 연행관련 작품으로 분류하였다. 연행관련 작품으로 선정된 몇 작품은 편차순서도 조정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다만 몇 작품은 공간적 배경이나 편차상 연행과 관련된 작품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검증을 요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연행관련 작품에서 제외하였다.

연행시의 작품세계는 크게 ‘觀光興懷의 稱歎과 鄉愁’, ‘交遊人士에 대한 勸勉과 敬慕’, ‘史蹟에서의 弔古와 鑑戒’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먼저 ‘觀光興懷의 稱歎과 鄉愁’를 노정한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다. 매계는 연행을 앞둔 동료에 대한 贈別詩를 통해서 관광에 대한 기대감과 참신한 작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열망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연행에서는 산해관 만리장성 같은 이국적인 경물을 접하게 되면 칭탄의 情感을 노

정 하였다. 또한 변화한 도시를 경과할 때면 明을 中華로서 실감하기도 하였다. 다만, 오랜 연행노정에서 오는 行路難에 봉착하면 鄉愁感을 숨기지 않는 인간적인 면모도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交遊人士에 대한 勸勉과 敬慕’의 소회를 표현한 작품을 살펴 보았다. 虛白堂 洪貴達은 매계에게 연행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시문의 창작으로 이어지기를 권면했다. 매계도 교유인사들에게 異國景物의 觀光이나, 이를 통한 새로운 詩作의 계기로 삼을 것을 권면하곤 하였다. 새로운 경험이 성정에 감회를 일으켜 자연스럽게 창작으로 이어진다는 이러한 관점은 文以載道論的 認識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경에서 교유한 인물에 대해서는 인품과 학식에 대하여 敬慕의 마음을 드러냈다. 원래 ‘人臣無外交’의 원칙에 따라 燕行使들은 중국의 인사들과 시문을 수장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교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다만 시문의 주제와 내용이 다분히 稱頌과 敬慕로 일관하는 경향은 창작동인에 외교라는 특수한 상황이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 ‘史蹟에서의 弔古와 鑑戒’를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서 매계의 역사인식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매계는 진시황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진시황의 功過에 대한 냉정한 역사인식을 볼 수 있다. 특히 만리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관방의 효용성, 선진 문물로서의 상징과 더불어 명대 후반까지 장성의 축성이 지속되었던 시대상황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장소에서는 弔古와 鑑戒를 드러냈는데, 『두시언해』의 편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매계가 어양을 지나면서는 ‘안록산의 난’의 최초 발발지로 인식하고 감개함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인물인 문천상의 사당을 참배하면서 문천상의 충의를 蘇武와 諸葛亮보다 훌륭하다고 尊慕와 鑑戒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매계는 史蹟과 역사적 장소를 경과하면서 단순히 弔古의 感傷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사의 비판적 인식과 재평가를 통해서 溫故知新과 前轍不踏의 鑑戒를 얻고자

했다.

매계 연행문학의 문학적 의의로는 먼저 燕行詩는 蘇軾 및 江西詩派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한시의 형식은 칠언율시가 대부분 이고, 수사상 用典과 換骨奪胎法 등이 자주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매계 燕行詩는 칠언율시 위주의 서정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하고, 적극적인 교유 관계가 보인다.

이상으로 매계 연행문학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연행록의 고증적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매계의 문학세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매계집』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고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작품들이 일실 된 상태인데, 여러 문집이나 시화집에서 매계의 작품들을 발굴할 필요도 있겠다. 연행문학의 측면에서는 매계를 포함한 조선전기 연행사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를 기약한다.

<參考 文獻>

1. 원전

『禮記』

『薊山紀程』

『全遼志』

『燕山君日記』

金宗直, 『佔畢齋集』

朴趾源, 『熱河日記』

李齊賢, 『益齋亂稿』

正 祖, 『弘齋全書』

曹 偉, 『梅溪先生文集』

洪良浩, 『耳溪集』

林基中, 『연행록 속집』, 상문사, 2008.

_____, 『연행록 전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2. 단행본

宋載邵의 5인 譯註, 『譯註 唐詩三百首』 2, 傳統文化研究會, 2011.

申太永, 『明나라 사신은 朝鮮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운샘, 2005.

梁光錫 編譯, 『漢詩論의 理解』, 민족문화문고, 2006.

申用浩 編述,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2.

劉暢의 2인, 『韓國詩話人物批評集』 2, 보고사, 2012.

李東宰, 『매계 조위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_____, 『梅溪集』, 평사리, 2009.

임종욱 편, 『中國文學 批評用語辭典』, 이회, 2011.

조동일, 『문학 연구 방법』, 지식산업사, 2004

崔康賢, 『韓國紀行文學研究』, 일지사, 1992.

이-푸 투안 지음,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2007.

E.H.CARR · 김승일 역, 『역사란 무엇인가』, 범우사, 1996.

邱燮友 注譯, 『新譯 唐詩三百首』, 臺灣 三民書局印行, 2005.

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同和出版公社, 1984.

黃永武, 『中國詩學』 鑑賞, 設計篇, 臺灣 巨流圖書公司, 1980.

3. 논문

嚴慶欽, 「韓國使行詩研究」, 동아대(박사), 1993.

李善洪, 「朝鮮時代 對中國 外交文書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博士), 2005.

拙 稿, 「壬亂 收拾期 使行文學 研究」, 공주대(박사), 2010.

이승수, 「柳夢寅의 연행 체험과 중국 인식」, 『東方學志』 제136집, 2006.

이승원, 「근대전환기 기행문에 나타난 세계인식의 변화 연구」, 인천대 대학원(박사), 2007.

林文星, 「燕行錄에 나타난 遼寧認識의 樣相」, 韓國學中央研究院(석사), 2012.

최강현, 「한·중사행문학연구 1 : 사행로의 변천상을 중심으로」, 『동서문화 교류연구』 제2집, 1999.

4. DVD · 인터넷 자료

林基中 編, 燕行錄叢刊, KRPIA.CO.KR, (주) 누리미디어, 2011.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KRpia-燕行錄叢刊(<http://www.krpia.co.kr/content/?svcid=KR&proid=187>)

Abstract

*A Study on Maegye Jowi's Travel Literature / Lee Soung-Hyung**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the works about traveling contained in the collection of Maegye (梅溪) Jowi (曹偉) (1454~1503) and examine th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Maegye's travel literature.

First of all, this study considered the naming of Yeonhaengrok and works about traveling through historical investigation on 「Yeonhaengrok」 based on the period of traveling, process of traveling, and the period of social intercourse, etc. Among the existing works of 54 Je (題) 73 Su (首) contained in 「Yeonhaengrok」, the works of 31 Je (題) 41 Su (首) were classified as the ones dealing with traveling. Also,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literature, this paper classified Jeungbeolsi (贈別詩) works of 5 Je (題) 5 su (首) and Hong Gwi Dal's work of Zengxulei prose as the works of traveling.

Yeonhaengsi's world of works was examined largely in the following divisions: 'admiration of the pleasure in the process of tourism and nostalgia', 'encouragement and respect regarding the persons of social intercourse', and 'sad emotion and lessons from old history at the historic sites'.

First of all, in the world of works dealing with 'admiration of the pleasure in the process of tourism and nostalgia', Maegye wrote Jeungbeolsi for this coworkers who were about to travel to express his passion to create novel works and expectation for the tourism. And during traveling, when he encountered something exotic, he expressed the emotion of admiration. Also, when he passed by a prosperous city, he felt Ming (明) as China. Yet, once facing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a long journey, he showed his humane aspects as well not hiding

* Teacher of Gunpo Hungjin Highschool / great-one@hanmail.net

his nostalgia.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works expressing the perspectives of ‘encouragement and respect regarding the persons of social intercourse’. Maegye also recommended the persons of social intercourse to take the tourism of exoticness as a chance to write a new poem. This viewpoint shows his consciousness of Munijaedoron (文以載道論). Also, for the figure of his social intercourse in Peking, he expressed respect for his character and knowledge. Yet, for the specific situation of diplomacy, he tended to be very consistent with compliment and respect in terms of his poetry’s topics and contents.

Third, this study considered the aspects of Maegye’s historic consciousness through the works expressing ‘sad emotion and lessons from old history at the historic sites’. Maegye’s evaluation on Qinshihuangdi is quite contrary. He had such rational historic consciousness about Qinshihuangdi’s desert. Particularly, his positive evaluation on the Great Wall of China seems to have been affected by not only the utility of Kameralismus and the symbol of advanced culture but the periodic situation that the wall was built until the latter period of Ming complexly. We can see that he did recalling and showed admiration at the historic sites. As passing by the relics or historic sites, Maegye did not simply do recalling or show admiration but tried to get impressions through Ongojisin (溫故知新) and Jeoncheolbuldap (前轍不踏) by recognizing and reevaluating history critically.

Regarding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Maegye’s travel literature, first, we can see that Yeonhaengsi (燕行詩) was influenced greatly by Sosik (蘇軾) or Gangseosi School (江西詩派). The form of Chinese poetry mostly adopted was Chileonyulsi, and in terms of rhetoric, Yongjeon (用典) or Hwangoltaltae Method (換骨奪胎法) was often taken. Next, Maegye’s Yeonhaengsi pursued the world of lyrical works centering around Chileonyulsi and showed positive social intercourse.

【Key words】 Maegye Jowi(梅溪 曹偉), Yeonhaengrok(燕行錄),
Yeonhaengsi(燕行詩), Gangseosi School(江西詩派),
Yongjeon(用典), Hwangoltaltae Method(換骨奪胎法)

투고일 : 10월 26일, 심사일 : 11월 26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